

남한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

KBS와 MBC 북한 문제 담당기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정재철***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 기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제작 차원에서 북한 방송 보도의 제약 요인들을 집중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한 방송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북한 전문기자들과 외교통일부 출입처기자들로 구성된 KBS 3명과 MBC 3명이 집중적인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 국내 방송사 기자가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요소로는 국민 정서나 특정 사건이 유발 시킨 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정부가 주도하는 대결 구도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대북관 혹은 보수 언론의 대북관 등이 기자들의 자유로운 북한 뉴스 가치 판단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 제한 요인들, 심층인터뷰

1. 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1년 6개월 정도를 지나고 있다. 소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선진화와 시장지상주의를 결합해 사회 각 분야의 지각 변동을 시도해 왔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언론 분야를 경쟁체제와 신성장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재편하려는 움직임과 대북 정책의 보수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 관계는 이명박 정부 들어 범정부적으로 추동되는 북한에 대한 수구적 냉전 시각으로 그동안 평화 지향적으로 정착되어오던 남북관계가 점점 대립이 심화되고 경색되면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9월 18일 북한 정권을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 체제를 확립'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체제'로 수정을 포함하는 국방부의 교과서 25개항 수정 요구에 이어, 9월 20일 통일부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에 '햇볕정책' 용어를 '화해협력정책'으로 교체할 것을 포함, 58곳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적 보수적 색채 강화 등의 시도들은 험난한 남북 관계를 예고한 바 있다.

사실상, 2000년 6월 15일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남북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바 있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남북한 방송교류가 급증했으며, 특히 남한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 남북 방송인의 만남, 프로그램 교류, 남한 방송의 북한 현지에서의 방송 취재 역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고무할 만한 일이었다. 또한 북한이 정보공개로 인한 체제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방송 교류를 원하는 실정에 있어 폐쇄성은 여전한긴 하지만, 이와 같은 방송 전반에 걸친 남북 간의 방송교류는 북한 역시 경제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측 언론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 이 글은 2008년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을 기초로 전체적으로 보완 및 개정한 논문임을 밝힌다.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jchungds@chollian.net)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며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방송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단 50년 동안 쌓여 왔던 남북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난 수년 동안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민족의 군사 외교적 자주성 확보, 미국의 국제 전략에 대한 남북한 간의 갈등 해소, 특히 북·미 간 핵 문제로 인한 대치 상태와 한반도 긴장 분위기 해결 등의 맥락 속에서 남북 관계가 화해하고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딛기 위해서는 방송이 기여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방송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평화통일에 언론이 미칠 수 있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1995년에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마련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1998년도 KBS와 SBS 제작 가이드라인 내의 북한관련 조항, 그리고 KBS가 2000년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해 준비한 보도 준칙은 북한 및 통일 관련 보도와 관련해 한국 방송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보도 강령으로서 “보도의 객관성과 민족의 화합과 화해”라는 두 가지 공통된 기본 원칙을 표방했다. 이 기본 원칙은 보도의 객관성과 민족의 화합과 화해라는 큰 틀을 남북한 문제를 다루는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저널리즘의 실천윤리’로서 정확성, 진실성, 균형성, 중립성을 지키는 한편, 민족의 통일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민족 이념적 지향성’을 표방하고 있다. 이 기본 원칙은 따라서 남북 간에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상호존중과 화해를 기반으로 민족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북한 관련 방송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남한의 북한 보도 경향,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남·북한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방송 교류의 성숙 국면에서도 끊임없이 객관보도의 측면에서 혹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보수 언론들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수구 냉전적 보도 경향이 가세하면서 남·북한 방송 교류 역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화통일 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철기 교수의 다음의 지적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언론들은 냉전시대의 남북 대결적 보도 태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NLL 고수’와 ‘원칙을 지킬 것’을 주문하고, 남북관계에 ‘상호주의’의 적용을 역설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이러한 보도 태도와 주문은 남북관계 악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보수정권의 출범으로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의 역할과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이철기, 2008).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무엇보다 기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제작 차원에서 북한 방송 보도의 제약 요인들을 북한 관련 방송 기자들과의 집중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한 방송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는 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 문헌연구

1) 북한 뉴스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

언론이 표현하는 현실은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가 아닌 윤리성, 전체성과 역사성 속에서도 그 정당성이 주어지며 구성되어진 현실이다. 이것은 언론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언론은 가치중립적인 태도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작동하는 사회내의 가치체계와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할린(Hallin, 1986)의 뉴스 가치 모델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 보인다. 할린에 따르면, 뉴스 가치는 ‘합의 영역’과 ‘논쟁 영역’과 ‘일탈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합의의 영역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언론은 합의된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옹호자가 된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같은 국시의 영역이다. 다음으로, 뉴스 가치의 합법적 논쟁 영역은 사회의 합법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다양한 시각과 가치들이 헤게모니적 갈등을 벌이는 곳이다. 또한, 뉴스 가치의 일탈적 영역에는 사회의 주류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나 지배적 가치와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존재한다. 이 영역에서, 언론의 역할은 일탈을 노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며 정치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논의과정에서 배제해 버리는 것이다(박정순,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남한 언론의 북한 보도는 상당히 많은 북한 관련 뉴스 가치들이 일탈적 영역에서 합법적 논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실상, 198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간 ‘햇볕정책’ 및 ‘6·15남북정상회담’ 등의 획기적인 사안이 실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TV뉴스 프레임에 대한 한국 언론 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과거 냉전적이며 적대적인 특성을 지향하던 북한 관련 TV 뉴스 프레임이 우호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프레임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김대중 집권 전 언론은 보수, 반공/레드 콤플렉스, 냉전 패러다임, 이분법적 메카시즘에 있었다면, 김대중 집권 후에는 통일/평화지향적 공존의 논리, 탈냉전 패러다임, 이념 스펙트럼의 확장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한다(한국언론연구원, 1998). 1999년에 실시한 김성준·이창현의 연구 결과 역시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방송사에서 북한 관련 뉴스에 나타난 적대적 이미지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순(2000)은 대북 포용정책 이후 북한뉴스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가 단순히 남한 언론의 북한 보도 변화라는 별개의 독립된 현상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연계되는 것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동시에 말해 준다.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배적 가치로 하는 한국사회의 분위기가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 뉴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주어진 사안에 대해 지배적 가치 자체가 변화하는 사회 변혁기에는 언론보도의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기준이 변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평화통일 시민연대가 행한 지상파방송 3사 저녁뉴스의 북한 관련 모니터링(2006)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공중파방송 3사의 저녁뉴스에서 우리 방송은 지난날 냉전적이고 의도적인 반복 보도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냉전적 보도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보도에서 좀 더 민족 주체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치와 인권 뉴스가 북한관련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북한관련 뉴스는 큰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 결과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역시 북한 뉴스는 색깔 논쟁과 같은 일탈적 영역에서는 상당 부분 벗어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합법적 논쟁 영역과 일탈적 영역 사이의 경계에서 북한 뉴스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 뉴스 가치는 ‘합의의 영역’에 평화통일, 평화공존, 화해협력이 포함되었고 ‘합법적 논쟁영역’에는 국가보안법, 반공이데올로기,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관련 뉴스, 통일 정책 등이 포함되었으며, ‘일탈적 영역’에는 안보 위협적 뉴스, 북한체제 찬양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축의 변화와 북한 관련 뉴스의 보도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합법적 논쟁 영역에 들었던 뉴스 가치 영역이 범정부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보수 언론의 공세 속에서 다시 일탈적 영역으로 퇴행 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극복의 대상이던 냉전적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구시대적 지배적 가치가 또 다시 사회의 전면에서 나서면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통일 지향적 언론의 북한 보도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왜곡과 편파보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국면에 봉착해 있다.

2) 북한 관련 방송 보도의 문제점들

지금까지, 국내 방송매체에 의한 북한 관련 기사나 보도에 대한 분석은 사실성 검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특히 배성인(2003)이 행한 지상파 3사의 북핵 문제 관련 방송의 보도 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KBS와 MBC는 2002년 10월 17일 시작된 북핵 위기 이후 보도에 있어서 다면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맥락적으로 북핵 문제를 이해하려 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KBS와 SBS의 경우 2002년 12월 20일부터 2003년 2월 19일까지 저녁종합뉴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 측 입장을 대체로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미국 측 입장을 비판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했지만, MBC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 중립적으로 이해하려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KBS의 경우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 핵 위기’ 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외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김동민(2005)의 지적에 의하면, 지상파방송 3사는 미국 상원이 2004년 6월 28일 통과시킨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무사안일 내지는 퇴행적 보도를 반복했다고 비판한다. 김동민은 한국의 주류 신문인 조·중·동이 북한인권법과 탈북자를 북한 공격에 악용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방송 3사가 확성기 노릇을 했다고 비판한다. 그 예로서 SBS는 작년 7월 27, 28일의 탈북자 대거 입국을 ‘자유를 향한 탈출의 마침표’ 운운하면서 수구신문들의 왜곡보도를 답습하였고, MBC도 대규 모 탈북의 원인과 근본 대책 제시에는 소홀하면서 단순히 사실 전달에 그쳤다고 지적한다.

6자회담 보도에 관련해 이기현(2005)이 행한 “지상파TV 뉴스의 6자회담 관련 보도 분석”에서 이기현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2005년 7월 9일부터 회담이 재개된 이후 휴식기 동안 각국의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8월 28일까지 약 2개월을 내용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 방송

3사 모두 6자회담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으며, 이 때문에 중립적인 보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6자회담의 중요성에 비해 방송 3사는 상대적으로 심층적인 보도가 충분치 못했고, 일회성 전망 중심으로 이뤄져 회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손영준(2006)은 언론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 보도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남한 언론은 북한 미사일 사태에서 주변부화, 타자화 관행을 답습하고 있으며, 정보의 흐름은 1998년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1호 발사 때나 1994년 한반도 핵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외신에서 중대 사안으로 취급하고 우리 언론은 따라가기 바쁘다. 우리가 자체 생산해내는 뉴스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 관한 것이거나 향후 전망에 대한 것이다. 그 역시 원재료는 외신을 타고 온 것들이다. 해외에 특파원들이 나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지역 언론이 보도한 것을 재가공한 것이다. 실제적 진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우리 언론은 해석과 전망에 치중한다. 이런 방식의 해석과 전망에는 편견이 스며들고 추측과 희망이 가미된다(손영준, 2006).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내 방송매체에 의한 북한관련 보도 경향에 대해, 김동민(2008)은 방송사들은 철학적 토대가 빈약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신문들의 반통일적 반평화적 보도를 제압하는 의제설정 형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방송 3사는 미국 상원이 2004년 6월28일 통과시킨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 무사안일 내지는 퇴행적 보도를 반복했으며, 조·중·동이 북한인권법과 탈북자를 북한 공격에 악용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확성기 노릇을 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장인 박진형(2008)의 ‘최근 남북관계 관련 언론보도 분석’ 역시 이명박 정부와 보수신문이 합심해서 남북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제어하거나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방송에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사실상, 방송보도의 경우 한 아이템 당 1분 30초~2분에 이르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깊이 있는 보도를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는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려 남북관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충분했지만 이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합해 본다면, 한국 방송의 북한 보도는,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며, 뉴스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보도에서 긍정적인 보도로 바뀌어야 하며,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심층보도를 지향해야 하고, 어렵지만 독자적 취재가 필요하며, ‘역지사지의 관점’, ‘통일지향적 보도’, ‘민족 내부에 대한 관심’ 등이 한국 방송의 북한 보도에 있어서 보완할 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방송의 북한 보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서 누적된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반복되어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실제 방송보도에서 별반 개선되어 오고 있지 않다.

3) 북한 보도의 생산자 연구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분석을 통해 제작 차원에서 좀 더 심층적인 북한 보도 문제점들을 분석해 극복방안을 찾아보려는 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방송 문화란 생산차원, 텍스트 차원, 소비 혹은 수용 차원 등이 순환과정을 거쳐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일정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방송의 뉴스 보도 연구는, 앞서 요약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텍스트나 내용분석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 뉴스의 생산자 차원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생산자 혹은 방송 제작관행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방송 장르를 불문하고 흔치 않으며, 대표적으로는, 양정혜(2004)의 「뮤직비디오 제작의 관행이 텍스트 구성에 미치는 영향」, 강형철(2002)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 특성과 과제」, 김연식·윤영철·오소현(2005)의 「PD저널리즘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과 제작관행: MBC를 중심으로」, 등을 들 수 있다. 신문의 경우, 홍은희(2007)의 「신문매체에서의 라이프스타일 뉴스 제작관행연구」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매체 생산자 연구에의 관심이 언론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예증해 주고 있어,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생산자 연구는 좀 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 가장 소홀히 다루어진 방송 뉴스 생산자 차원의 연구, 특히 북한 뉴스 취재 관행 및 기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자본과 국가 권력으로 부터 취재 보도가 자유로워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 공영방송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자들의 북한에 대한 북한 방송 보도의 제약 요인들이 무엇인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본고의 주요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에서 북한 방송 뉴스의 취재 관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북한 관련 취재 방송 기자들은 북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3. 방송사 기자가 북한에 대한 보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요인은 무엇인가? 4. 방송사 내부 환경이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5. 방송사 외부 환경이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

3. 연구방법

1) 방송 생산자 연구 방법으로서의 심층인터뷰

방송 생산자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는 보편적 방법으로는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들 수 있다. 본고 역시 이 두 가지 연구 방법을 고려했으나 연구자가 방송사 내부에서 머물면서 북한방송 제작 관행을 참여 관찰하는 방식은 방송사의 사정으로 채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 연구방법으로서 심층면접 방식만을 채택하게 되었다. 질적 연구로서 심층면접이란 심층적이고, 반구조화된 형태의 면접이다. 따라서 심층 면접이란 주제가 화제 중심적이며 연구자가 피면접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창출한다. 또한, 공식적인 질문이나 답변보다는 대화나 논의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심층 인터뷰는 깊이 있고 복잡성이 있으며 완속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심층 면접에서 연구자는 자료의 창출과정에서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자료수집가로 머무르지 않는다. 연구자

는 면접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반향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연구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의 심층 면접은 면접방식에서 일단 연구자가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범주나 주제들을 개발하지만 면접과정에서 피면접자가 개진하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본고에서 실행한 심층 면접은 면접 전에 각 주제에 관한 구체적 질문들을 준비했지만 완전하게 미리 틀 지어 질문하기보다는 각 주제 내에서 피면접자와의 대화 방향에 따라 질문순서를 바꾸거나 새로운 질문들을 추가하기도 했다.

2) 인터뷰 대상 기자

본고의 연구 대상 방송국은, 앞서 기술했던 것처럼, 시청자들을 위한 공영 방송으로 분류되는 KBS와 MBC¹⁾로 제한했다. 사전 조사 결과, 이들 2개의 방송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기자들은 방송사 근무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외교통일부 출입처 기자들로서 이들 중 일부는 외교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동시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다. KBS의 경우, 1명의 북한 관련 예비 전문기자가 있었으며 뉴스 보도와 동시에 <남북의 창 프로그램>을 제작했다.²⁾

MBC의 경우, 북한 뉴스 보도와 프로그램은 분리가 돼 있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인 통일전망대의 경우 제작 프로그램으로서 데일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많이 다룬다. 통일전망대에는 4년 전에 북한 전문기자 제도를 도입해, 민족 전문기자로 지칭되는 전문기자가 한 명 있으며, 북한 핵심험과 같은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 뉴스 특보에 출연한다. 외교통일부 출입기자는 별도로 정치 1팀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사전 조사 결과, 집중적인 심층 인터뷰 대상자로서는 북한 관련 보도를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전문기자들과 외교통일부 출입처 기자들 중 북한 관련 뉴스 보도량이 가장 많은 기자들이 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심층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기자들은 KBS 3명과 MBC 3명으로서 다음과 같다.

KBS A기자: 보도국 정치외교팀 외교 통일부 출입기자, 북한 관련 취재 및 보도 경력 3년 정도.
<남북의 창 프로그램> 제작.

KBS B기자: 보도국 정치외교팀 외교통일부 출입기자, 북한 관련 취재 및 보도 경력 3년 정도.

KBS C기자: 보도국 정치외교팀 외교통일부 출입기자, 북한 관련 취재 및 보도 경력 3년. <남북의 창 프로그램> 제작.

MBC A기자: MBC 보도국의 정치국제에디터 소속으로서 통일전망대 팀장, 북한 전문기자, 회사편제로는 민족문제 전문기자로서 2005년부터 전문기자를 맡고 있음.

MBC B기자: 보도국 정치 1부 소속, 청와대, 외교통일부, 국방부 출입기자, 북한 관련 취재 및

1) 한국사회에서 MBC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무엇보다 MBC가 공공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주식 70%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MBC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했다.

2) 예비 전문기자 제도는 KBS 보도본부 전체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예비전문기자 타이틀을 주고 2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 전문기자로 인정하느냐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2009년 초 폐지되었다.

보도 경력 4년.

MBC C기자: 보도국 정치 1부 소속, 외교통일부 출입기자, 북한 관련 취재 및 보도 경력 3년.

3) 인터뷰의 주요 질문 내용

북한 관련 전문기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앞서 제기했던 연구문제들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물을 것인가 숙고해서 질문의 폭과 깊이를 배합하고 질문의 순서를 정했다. 심층 인터뷰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딱딱하지 않고 가벼운 질문들로부터 시작했으며, 인터뷰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성한 주요 질문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의 취재원과 취재 시스템
- (2) 북한 관련 취재의 문제점
- (3) 북한 관련 취재 시스템에 대해 국내 방송사가 보완해야 할 점들
- (4) 북한 관련 취재 방송 기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
- (5) 방송사 내부의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인식
- (6) 방송사 기자가 북한에 대한 보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요인들
- (7) 방송사 내부 환경이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8) 방송사 외부 환경(예를 들어 정치적 환경)이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 관련 전문기자들과의 심층인터뷰는 KBS기자의 경우 2008년 9월 중에 1명과 2009년 9월 중 2명이, MBC의 경우 2009년 9월 중 2명이 정부 청사 별관의 한적하고 조용한 커피숍에서 대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약 30분에서 1시간 20분 동안 사이로 행해졌다.³⁾ MBC 민족문제전문기자의 경우 2008년 9월 중 MBC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자연스런 대화 형식으로 약 1시간 10분 정도 인터뷰가 실시됐다. 심층 면접된 내용들은 소형녹음기를 통해 모두 녹취되었다. 이후 녹취된 내용은 모두 원본과 동일하게 텍스트로 만들어져 주제별로 분석되었다.

4.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1)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의 취재원과 취재 시스템

KBS와 MBC의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의 취재원들은 정부당국의 발표, 전문가, 외신, NGO, 남북 간 회담이나 민간단체 방북시 동행 취재 등을 통해 혹은 ‘조선중앙 TV’와 연합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북한 매체(조선중앙통신 등) 자료, 통일부에서 접하는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3)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시기를 달리해 2차례 행해진 것은 인터뷰 내용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MBC 모두 북한 상주 취재 시스템은 없지만, 북경의 베이징 특파원을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자들은 사안이 있을 때 단둥이나 국경 지역에 가서 취재하고 있다. 2개 방송사 모두 담당 기자가 북한 기사를 취재한 후 데스크와 토론을 통해 보도 아이টে를 선정하는 유사한 취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 북한 관련 취재의 문제점

북한 관련 취재의 문제점은 방송 2사 공히 북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당국이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점과 현장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아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북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실제 상황과 다른 기사가 보도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에서 인터뷰 기자들 모두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위원장 이상설 때 북쪽에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게 어렵죠. 접근이 어려운 나라고 폐쇄적인 나라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어떤 사안에 대해 얘기를 들었을 때 당국도 쉽게 확인을 안 해주는 거고. 그게 기사를 쓰려고 할 때 사안에 따라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통일부 말고 정부부서도 쉽게 확인을 안 해준다. 미사일 엔진 연소 실험을 했다하는데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를 정보당국자들이 확인을 잘 안 해주는 어려움이 있다(KBS A기자).

첫째, 접근 불가가 문제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현장과 진실에 가까우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취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진실에 접근하기 힘들다. 다음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관계, 아직까지는 대결적인 구도가 있고,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MBC A기자)

3) 북한 관련 취재 시스템에 대해 국내 방송사가 보완해야 할 점들

인터뷰 기자들은 북한 관련 취재 시스템에 대해 국내 방송사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서 방송사의 남북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취재원 접근성 문제 보완,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인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남북 관계,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보완될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고,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과정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거죠(KBS A기자)

구조적으로 남북 당국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보완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 국내 방송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북한 문제를 오래 할 사람이 필요하다. 북한이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에 대해 자료를 축적해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스템화해야 한다(MBC A기자).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사의 북한 관련 전문기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BS의 경우 (예비)전문기자 제도는 자체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MBC의 경우 전문기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전문기자는 기자들에 의해 선호되지 못하는(MBC B기자)”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서는 “외국의 방송사와는 달리 국내 방송사 경영진들은 기자들이 여러 부처를 거쳐 경험을 쌓아야 간부로서의 지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식해 부처 순환 근무 기자들이 향후 정치 부장이나 사회 부장 등의 보직 부장이 될 가능성이 큰 사내 분위기 때문(MBC B기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전문기자 제도는 전문 기자가 보직 순환 기자보다 승진과 보수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기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북한 관련 기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북한 문제를 취재하는 외교통일부 출입처 기자들이 1~2년마다 타 부서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KBS B기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적시했듯이 “북한 관련 현안의 경우 북한이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MBC A기자), 기자들이 출입처 순환 근무를 하다보면 북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총체적인 맥락을 읽을 능력을 잃게 되어 기사의 전문성이 약화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KBS B기자).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북한 전문기자 제도를 정착시켜 전문기자들이 외교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북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담하게 하는 한편, 보도국에 북한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분석과 전망에서 총체적이고 균형 잡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북한학 학자와 평화통일시민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상시 자문위원회의 기구를 설치해 앞서 지적한 북한 관련 취재의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북한 관련 취재 방송 기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

인터뷰 결과, 기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같은 민족으로의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자들마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부분적인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북한 취재가 기자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처 간 순환근무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성향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 대한 기자의 인식에 대한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북한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로서 강조했던 부분은 “전문적인 북한학 연구(KBS C기자),” “탈북자들의 증언(KBS B기자),” “북한 동행 취재 경험(MBC B기자), 전문적인 북한 취재 경력(MBC A기자) 등으로서, 이러한 요인들이 북한 관련 취재 기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틀 지우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KBS

개인의 인식으로 우리 민족, 체제 이념을 떠나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있고 정치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로 갈라져 있지만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지상주의자는 아니에요. 남쪽이 경제나 사회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될 경우 통일비용문제나 사회통합 문화통합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통일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은 편이고 준비된 통일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KBS A기자).

북한은 이씨 왕조가 김씨 왕조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 베이징 가서 탈북자를 만났는데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150명이던 수용소 인원이 3년 만에 30명으로 줄어들었다. 북한 소수의 특권층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비참한 상황에 있다... 북한이 2차 핵실험하면서 도박을 하면서 거짓말 하면서 북한에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자들 정서가 있다(KBS B기자). 북한(정권)의 실체는 한마디로 우리의 적이다. 다만 우리의 적이며 같이 살아야 하는 민족이다. 북한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KBS C기자).

(2) MBC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어떤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이웃에 있는 정치적 실체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하는 ... 서로의 안보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적대적 관계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현실이니까요(MBC A기자). 북한은 관리 대상이지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기회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MBC C기자). 같은 민족이고 통일의 대상이고, 북핵 문제의 경우 북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문제로 보아서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MBC B기자).

이상의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들은 통일과 관련된 북한의 인식에서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분단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면서 급격한 통일보다는 남한의 국익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KBS 기자들의 경우, 북한은 같은 민족이며, 통일은 필요하지만 남북 모두에게 준비된 통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왕조나 적으로 표현할 만큼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MBC 기자의 경우, 북한은 정치적 실체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민족, 안보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적대적 관계의 대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거나 혹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뷰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 해 볼 때, 앞서 지적했던 1995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이 마련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과 1998년 국내 방송사가 표방했던 남북 간에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상호존중과 화해를 기반으로 민족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북한 관련 방송 이념에 비교해 본다면, 인터뷰 기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편으로는 이질성, 적, 관리 대상 등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실용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방송사 기자들의 북한 인식들은 민족 문제를 선도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해야하는 공존의 논리, 탈냉전 패러다임으로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방송사 내부의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2개 방송사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KBS는 북한 문제에 대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MBC는 방송사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시각 역시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KBS

어느 회사건 그 회사만의 분위기가 전통 이런 게 있기 마련이고 저희 회사는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공무원, 공사라는 특성에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국가기간방송인 점, 뭐 이런 점이 작용해서 북한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신중하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지요(KBS A기자).

(2) MBC

구성원들 사이에 큰 편차가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MBC에 노선이 아주 보수적이지는 않다. 색깔론은 없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뜨거운 가슴으로 무엇을 해보자는 것도 아니다(MBC A기자). 전반적으로 방송사 내부는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슈가 생기거나 사건이 터졌을 때나 북한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MBC C기자).

6) 방송사 기자가 북한에 대한 보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요인들

기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국내 방송사 기자가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요소 중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정서이며, 두 번째는 핵실험과 같이 북한 관련 특정 사건이 유발시킨 국지적 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남북 간 분단 상황 역시 기자들의 북한 관련 보도에서 잠재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취재원과 관련해, 국내 방송사 기자가 북한 관련 보도에서 영향을 받는 요소 중 하나는, 북한 관련 문제가 핵 문제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정보사안인 경우 미국 쪽 정보가 많은 반면, 국내기자들은 그 정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측 시각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1) KBS

KBS가 한겨레나 일부 인터넷 매체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KBS가 그렇다고 조중동 이른바 여기처럼 갈 수도 없는 거고, 나름대로 KBS가 중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이 보는 매체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 문제만이 아니고 KBS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이건 다른 언론이건 항상 KBS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틀이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도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취재한 부분이 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요(KBS A기자).

9시 뉴스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북한 관련 기사는 많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큰 일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 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뉴스의 속성상 기획은 잘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안에 대해 쫓아가기 바쁘니까 사실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어떤 내부에 대한 의식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뉴스 특성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고르고 내보는데 제약을 준다. 다른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뉴스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KBS A기자).

(2) MBC

북한의 행동에서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정책 판단이 실망스러울 경우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보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정세이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세나 국민 정서의 영향권에서 멀리 나가기는 힘들다(MBC A기자).

북한에 대해서는 철천지원수라던가 반드시 이른바 주식궁에 탱크를 몰고나가 태극기를 꽂아야 한다든가 혹은 흡수통일 해야 한다든가 하는 시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있는 기자들 모두가 그런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보사안인 경우 미국 쪽이 정보가 많아서 핵 문제나 미사일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고 유리한 정보만 흘리다 보니까 우리 보도가 어쩔 수 없이 휩쓸리는 경우가 있다... 사실 한국기자들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팩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MBC A기자).

국민 여론을 가장해서 다른 언론사가 치고 나가면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간다... 북한 관련 기사에서는 여론에 많이 움츠러든다(MBC C기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기사를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 남북 교류가 많아지면 브레이크 거는 기사는 안 쓰게 된다... 남북 관계에서 절대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기사의 내용도 바뀌게 된다. 교류에 관련된 실제 활동량은 줄어들고 북핵 실험 등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액션들을 쓰게 되는 것이다. 내부적인 검열이나 제약요인은 없다(MBC C기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자들의 북한 관련 취재 행위와 보도에 있어서 북한의 행동, 정세, 분단 체제, 국민 정서, 미국 쪽 정보가 기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BC의 민족전문기자의 경우 다른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서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북한을 탈냉전 패러다임 속에서 인식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A기자는 “방송 기자들 역시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데스크와 그 위의 상사들과 계속 의견 교환하고 시대가 바뀌었다든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바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냉전적 시각 이 부분은 많이 털어냈다고 봐요 ... 제약 요인을 뚫고 뺏어나갈 수 있는 탈분단 탈냉전 그리고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자들의 북한 관련 취재 행위가 북한의 폐쇄성과 국민의 정서 등에 의해 제약 요건으로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 전문기자제도와 같은 방송사 자체 내의 취재 기자 시스템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보도의 객관성과 민족의 화합과 화해라는 보도 강령이 실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방송사 내부 환경이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뷰 결과, 전체적으로 방송사 내부 환경은 지난 10년 동안 방송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간부들이 기자의 취재 활동에 직접적인 간섭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의 제작에 기자들은 신중한 방송사 내부의 조직 문화 혹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과 시청자의 눈높이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 KBS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지시는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자의 원고에 대해서 데스크나 상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그것도 직접적으로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그런 식으로 지시를 받은 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KBS A기자). 데스크나 상사로부터 간섭을 받아 본적 없다. 다만 편집회의를 통해 상호간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KBS C기자).

간부급이 신중한 집단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의제설정을 해야겠다 이게 구조적으로 어렵지요. 개인을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거다... 그런 문제의식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간부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KBS A기자)

(2) MBC

조직적 자기 검열이 있다. 시청자 눈치 본다. 북한 보도에서 시청률을 신경 쓰는 측면은 적다. 그러나 관심사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 여론이나, 여론을 거스르면서 나 혼자 잘난 척 할 수는 없다. 정세를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 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 회담을 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되고 수많은 남북 교류가 있고 그러면 시청자들의 관심은 분명히 우리가 남북이 될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간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MBC A기자).

8) 방송사 외부 환경(예를 들어, 정치적 환경)이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터뷰 결과, 방송사 외부 환경이 기자의 북한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무엇보다 현 정부가 주도하는 달라진 대북 정책과 대북관과 보수 언론들의 대북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방송 기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KBS

현 정권이 많이 알려진 대로 이전 10년을 부인하고 있고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으니, 아무래도 남북관계는 민감하니까 KBS에 대해서는 국정철학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뭔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취재에 제한 받는 것은 없어요... 위 사람들을 통해서 취재하지 마라 기사 쓰지 마라 내보내지 마라 그런 적은 없었어요(KBS A기자).

북한 뉴스의 경우 당시의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은 여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북한 핵 실험의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어서 별로 영향을 못 느꼈다(KBS C기자).

(2) MBC

대놓고 이렇게 해라 마라하는 것은 방송민주화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방송 아이템 결정 과정은 여러 차례 집단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MBC A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남북관계가 안 좋아 지나가 방북취재나 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념 논쟁을 과거에는 민간이 정부를 향해 주도하는 일부 보수 단체가 정부를 향해 주도하는 경우였다면 지금은 정부가 직접 나선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정부가 이념 논쟁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다(MBC A기자).

보수언론들이 낫 뜨거운 용어를 사용하며,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반평화적 의제 설정)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하나의 요소이며, 이러한 것이 여론이나 국민 정서라는 것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꼬투리가 잡히지는 않도록,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혹시 이게 꼬투리 잡히지 않나 신경을 쓰게 된다(MBC A기자).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북한 관련 취재 기자들과의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BS와 MBC의 북한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의 취재원들은 정부당국의 발표, 전문가, 외신, NGO, 남북 간 회담이나 민간단체 방북시 동행 취재 등을 통해 혹은 ‘조선중앙 TV’와 연합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북한 매체(조선중앙통신 등) 자료, 외교통일부에서 접하는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에 대한 기자의 인식과 관련해서 북한 관련 취재 기자들은 개인적 경험과 결합된 기자들 성향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뷰한 방송사 기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편으로는 이질성, 적, 관리 대상 등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실체에 대한 현실 인식과 통일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방송사 기자들의 북한 인식은 민족 문제를 선도하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해야하는 공존의 논리, 탈냉전 패러다임으로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 방송사 기자가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요소로는 국민 정서나 특정 사건이 유발 시킨 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관련 사건의 내용에 대해 취재 접근이 가능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 역시 북한 관련 특정 사건에 대해 국민의 정서나 여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방송사 외부 환경이 기자의 북한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 현 정부가 주도하는 대결 구도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대북관 혹은 보수 언론의 대북관 등이 기자들의 자유로운 북한 뉴스 가치 판단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방송사 간부들의 신중한 대북관과 방송사내 분위기 역시 북한 취재 기자들의 북한 관련 뉴스 가치를 합의나 논쟁의 영역으로 판단하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방송 생산자 차원에서의 북한 관련 보도 제약 요인들은, 앞서 관련 문헌연구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그동안 합의의 영역에 있었던 뉴스 가치들인 평화통일, 평화공존, 화해협력을 합법적 논쟁지역으로 후퇴하게하고, 합법적 논쟁 영역에 속했던 국가 보안법과 반공이데올로기 등은 다시 일탈적 영역의 뉴스 가치로 퇴행되는 양상을 창출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극복의 대상이던 냉전적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구시대적 지배적 가치가 또 다시 사회의 전면에 나서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통일 지향적 언론의 북한 보도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왜곡과 편파보도로 보일 수 있는 국면이 창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방송 보도 생산자 차원의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는 북한뉴스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가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국민 정서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 분위기의 변화를 동시에 말해 준다는 점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준다.

사실상, 다른 정치 갈등 보도와는 달리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독특한 어려움은 민족화합이라는 이념적 지향성 속에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중성을 극복하고 북한 보도가 민족화해와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생산자 차원에서 방송사의 북한 뉴스 보도 가치는 특정 시기 특정 정권의 대북 정책이나 사회 여론에 편승하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즉, 방송인들이 북한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인식에 안주하기보다는 한반도를 개방적이고 민족적인 안목에서 성찰해야 한다. 동시에 방송인들은 한반도의 역사와 동북아시아의 질서 및 궁극적으로는 강대국과의 국제관계라는 거시적인 전망 하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북한 뉴스 가치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손영준, 2006; 김동민, 2005).

이를 위해, 방송사 내부적으로는 취재 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관심, 북한 취재원 접근성 보완, 북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전문기자들과 같은 방송 인력의 증원, 보도국 내 북한 보도 상설자문위원회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방송사는 북한에 대한 중대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북한에 대한 단편적인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기획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사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을 분석하는 한편 시청자들에게도 사안을 정확히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사 외부적으로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연대하여 국내 대북 정책의 보수화를 막는 지속적인 노력과, 북한에 나무심기 운동과 같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여론의 분위기를 북한과의 평화 통일과 화해협력으로 유도하는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 보도 생산자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작업들은 결국, 한국 방송의 북한에 대한 뉴스 가치를 통일/평화지향적 공존의 논리, 탈냉전 패러다임, 이념 스펙트럼의 확장과 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공영방송 기자들과의 인터뷰로 제한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후속 연구로 민영방송, Cable TV 혹은 신문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해 비교 분석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Ⅰ 참고문헌

- 강형철 (2002).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 특성과 과제. 『방송과 저널리즘』.
- 김동민 (2005).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방송의 역할과 방향. 평화통일 시민연대 세미나 논문.
- 김성준·이창현 (2002). 북한 관련 TV뉴스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가을 통권 19호, 95~124.
- 김연식·윤영철·오소현 (2005). PD 저널리즘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과 제작 관행: MBC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겨울호 통권 제19-4호, 79~124.
- 박정순 (2000). 뉴스의 객관성과 이념성: 남북화해시대의 남북 언론의 대립과 변화. 『언론과 사회』, 제29호 가을호, 6~42.
- 박진형 (2008) 최근 남북관계 관련 언론보도 분석. 평화시대 통일시대 방송의 역할 모색에 관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 세미나 발제문.
- 배성인 (2003). 북핵 문제 관련 방송의 보도태도: 방송 3사의 2단계 제4차 6자회담 관련 보도 분석. 평화통일시민연대 세미나 발제문.
- 손영준 (2006). 북미사일 보도 아전인수. 6월 28일 한국일보 기사.
- 지상파방송 3사 저녁뉴스의 북한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 (2006). 평화통일시민연대.
- 양정혜 (2005). 뮤직비디오 제작의 관행이 텍스트 구성에 미치는 영향: 제작진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8-2호.
- 이기현 외 (2005). 지상파TV 뉴스의 6자회담 관련 보도 분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뉴스위치 보도자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년 9월 9일).
- 이철기 (2008). 평화시대 통일시대 방송의 역할. 평화시대 통일시대 방송의 역할모색에 관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평화통일 시민연대 공동 세미나 발제문.
- 한국언론연구원 (1998). 남북교류시대 북한보도 남북한 언론교류: 현황과 활성화방안. 한국언론연구원.
- 홍은희 (2007). 신문매체에서의 라이프스타일 뉴스 제작관행연구. 『대한가정학회지』.
- Hallin, Daniel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Berk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amela Shoemaker & Stephen Reese. *Mediating the Message*, N. Y. & London: Longman, 1991, 187~188에서 재인용)
- McQuail, D. 1986. "From bias to objective and back". In (Eds). McComack, T. *Studies in Communications, vol(3)*.
-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3)*.

(투고일자: 2009.6.1, 수정일자: 2009.9.19, 게재확정일자: 2009.10.15)

ABSTRACT

A Study on South Korea reporters reporting North Korea issues: Focusing on KBS and MBC

Jae-Chorl Chung*

This study deals with South Korea broadcasting reporters reporting North Korea issues focusing on KBS and MBC.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what kinds of broadcasting reporting restriction factors are in reporting North Korea issue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this study attempted the depth-interview with six broadcasting reporters working on KBS and MBC.

As study results, this study found out that Korean broadcasting reporters were sensitively influenced by public opinions concerned about a specific North Korea issue and political situations that a North Korea issue was positioned. In order to overcome such kinds of reporting restrictions in reporting North Korea issues, this study suggests that KBS and MBC needs more professional manpower dealing with North Korea issues and outside help such as civic social associations.

Keywords: North-Korea reporting, news reporter study, restriction factors, a depth-interview

* professor(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Dankook University)